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14호

체육시민연대 칼럼

코로나19 시대 스포츠와 신체 활동의 중요성

홍덕기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경상국립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김세훈의 스포츠IN

약물과 싸움, 스포츠계 생존이 걸린 과제

김세훈 스포츠경향기자

스포츠와 성차별

영국 총리 “트랜스젠더, 여자 스포츠 출전 말아야”

오달란 서울신문 기자

부산시체육회

시체육회, 현행법 위반... 피해 호소에 “연봉 불만 때문”

조민희 부산MBC 기자

1975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실화기반 북한 드라마

북한서 '70년대 탁구여왕' 박영순 다룬 새 스포츠 연속극 방영

김경윤 연합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체육시민연대 칼럼]

코로나19 시대 스포츠와 신체활동의 중요성

홍덕기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경상국립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pandemic) 선언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는 전 세계를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국내 확진자 수는 2022년 4월이 되어도 하루 20만 명을 넘어서며 일상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실내 생활체육시설 이용 제한, 실외 활동 위축 등으로 사람들의 신체 활동을 감소시켰다. 이로 인해 전 국민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우울감, 고독, 타인에 대한 경계 등 심리적·사회적 측면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오랜 영업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체육시설업자들도 다른 분야처럼 경제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확진자 수 증감에 따라 체육시설의 폐쇄와 재개를 반복하는 단순한 대책으로는 위드코로나(with-corona)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어렵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 의료단체들은 면역력 강화를 위해 중강도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여가를 통한 신체활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에 기여하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안전하게 운동하면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스포츠 환경조성이 절실하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확진자 수 중심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체육시설을 단순히 고위험시설로 간주하기보다 종목별 특성, 시설 환경, 이용실태 등에 따라 특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 및 신체 활동 대책에 대한 논의가 주로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삶을 조사한 통계청의 2021년도 자료에 따르면, 신체 활동은 코로나 이전 대비 17.6% 감소하였고, 수면시간과 게임 및 인터넷 이용 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의 온라인 수업에 따라 청소년들의 게임과 스마트폰 과의존 등 스마트 기기 노출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은 코로나19의 영향에 우선 고려해야 할 대상이며 어린 시절에 형성된 건강 습관은 평생을 통해 지속되므로, 체육교육은 필수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체육 현장은 실외 활동이 제한된 여건에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을 간헐적으로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대면 스포츠 및 신체 활동을 위한 환경이 미비한 실정이다.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스포츠 활동의 위축을 불러왔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비대면 시대의 스포츠를 위한 새로운 뉴노멀(new normal) 패러다임을 개척할 기회이기도 하다. 뉴노멀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스포츠와 신체 활동은 움직임 욕구라는 인간 고유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회적 장(場)이다. 스포츠와 신체 활동은 신체적 건강증진 및 유지와 긍정적 삶 등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만족감을 준다. 땀 흘리며 몸을 움직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스포츠와 신체 활동을 즐기는 경험은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학습활동으로 그 자체로 소중하다.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할 때 우리는 행복과 삶의 총만함을 체험한다. 어느새 봄이 다가왔다. 마스크가 여전히 답답하지만, 언제까지 제한된 신체 활동만으로 살 수는 없다. 이제는 뉴노멀 시대 속에서 스포츠와 신체 활동을 통해 적극적 건강증진과 더불어 삶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세훈의 스포츠IN]

약물과 싸움, 스포츠계 생존이 걸린 과제



#playtrueday

#playtrue

4월8일은 세계 도핑 방지의 날이다. 금지약물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지정했다. WADA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의해 1999년 설립됐다. 올림픽 역사가 10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 었다. 국제스포츠계도 약물에 대한 인식이 더뎠다. 지금은 WADA가 인정한 각국 지부, 위탁 기관은 30곳이 넘는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2006년 만들어졌다. 평창올림픽 유치 준비를 위한 일환이다. 국제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개최하려면 개최국이 국제 수준 금지약물 검사·분석 능력을 갖춰야 한다. 과거 IOC가 도핑 검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것과 달리, 지금은 개최국이 금지약물 검사 및 분석 능력을 스스로 갖추는 게 추세다.

KADA는 금지약물과 '조용하지만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매년 경기 전, 경기 중으로 나누어 전문선수와 프로선수를 대상으로 도핑 검사를 진행한다. 다만 선수조사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랜덤으로 진행되는 경기 중 조사는 파급력이 엄청나다. 불시 검사에서 금지약물 복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상당 기간 선수 활동 금지는 물론 은퇴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운이 없었다고 치부하기에는 피해가 크다.

국내 스포츠계 금지약물 복용 상황은 괜찮은 편이다. 프로구단은 트레이너를 중심으로 지침을 잘 지킨다. 축구는 도핑이 사실로 밝혀지면 무려 4년간 선수자격이 정지된다. 축구는 국제대회가 적잖아 도핑 지침을 철저히 지킨다. 대한체육회 등록선수도, 보디빌딩 등을 빼고는, 도핑 규정을 잘 지키는 편이다. 금지약물 복용을 차단하는 것은 스포츠 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정정당당한 경쟁, 충실한 준비 및 훈련 등은 스포츠 정신에 부합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은 스포츠맨십을 훼손하는 관행으로 철저히 사라져야 한다. WADA, KADA가 검사와 징계보다는 홍보와 교육에,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이유다.

한국스포츠계가 국제적으로 금지약물에서 건전한 곳이어도 할 일이 없는 건 아니다. 요즘 종종 현장에서는 체대 입시생 금지약물 복용 의혹이 들린다. 대학입시 실기 테스트를 준비하면서 약을 먹는다는 이야기다. 체대 입시생은 도핑 검사 대상이 아니다. 도핑이 필요해도 검사할 행정력도, 자금력도 없다. 또 국내 스포츠 단체들도 금지약물에 대해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부 선수 또는 지도자가 금지약물에 관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일시적으로 도핑 검사를 한 게 전부였다. 평소에도 예방 활동을 꾸준히 펼칠 필요가 있다.

2019년 프로야구 선수 출신 이여상이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 교실에서 전문 선수를 꿈꾸는 유소년 선수들에게 남성 호르몬 등이 포함된 약물을 팔았다. 이여상은 지도 활동 중단 뿐만 아니라 약사법 관련 중징계까지 받았다. 동시에 학생도 최대 4년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어른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학생들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몹쓸 짓을 한 게 초래한 비극이다. 부모는 모르고 했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별반 소용이 없다. 그걸 봐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걸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WADA와 KADA 모두 입장은 같다.

금지약물 복용에서 스포츠를 지키는 것은 스포츠계 전체가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하는 일이다. 이는 스포츠 가치는 물론 선수 생명, 장기적으로 그 선수의 은퇴 후 건강과 죽음까지 삶을 지키는 일이다.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KADA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스포츠 기관, 구단, 지도자, 부모, 선수도 약물과의 싸움에 동참해야 한다. 상대를 이기기 전에 자신을 이겨야 하고 자신을 이기려면 약물을 이기는 게 스포츠 정신의 요체다.

영국 총리 “트랜스젠더, 여자 스포츠 출전 말아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존슨 총리의 발언은 최근 트랜스 여성 사이클 선수인 에밀리 브리지스의 국내 대회 출전이 좌절된 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왔다.

CNN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6일(현지시간) 허트퍼드셔 웰링가든시티의 병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병원과 교도소, 탈의실 등에 여성 전용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자신의 발언이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내 생각이 다른 사람과 충돌한다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별을 바꾸는 사람들을 크게 동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BBC에 따르면 영국의 성소수자 단체인 스톤월은 존슨 총리의 주장이 차별적이라고 반박했다. 스톤월은 “트랜스젠더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혜택을 누릴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포괄적인 배제는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영국에서는 남자 사이클 대회에서 우승했던 선수가 여성으로 성전환하면서 여자 대회에 출전하려 한 일로 논쟁이 벌어졌다. 트랜스 여성인 에밀리 브리지스는 지난 1일 영국에서 열린 내셔널 옴니엄 챔피언십 여자부 경기에 출전하려고 신청했지만 영국 사이클 협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리지스는 지난 2020년 10월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호르몬 치료를 통해 여성으로 정체성을 바꿨다. 최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자 출전을 신청했다.

영국 사이클 연맹은 경기 전 1년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혈액 1ℓ당 5나노몰(nM·1몰의 1000분의 1) 이하로 유지되면 여자 대회 출전을 허용한다. 브리지스는 규정을 충족했지만 연맹은 그의 출전을 불허했다. 가디언은 브리지스가 남성 사이클 선수로 등록돼 있어 이 신분이 만료되기 전엔 여성으로 출전할 수 없다는 게 불허 사유였다고 보도했다. 브리지스는 성명을 통해 “누구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자신이 사랑하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아서 안 된다”며 영국 언론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악마화했다고 비판했다.

브리지스는 지난달 글래스고에서 열린 영국 대학 선수권대회에 남자부 경기에 남성으로 마지막으로 출전해 우승했다. 하지만 성전환 호르몬 요법을 받던 중인 지난해 5월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는 45명 중 43위에 그쳤고, 같은 해 9월 열린 웨일스 내셔널 챔피언십 로드 레이스에서는 우승자에게 12km 뒤져 최하위에서 2번째 기록에 머물렀다.

미국에서도 트랜스 여성의 여자 대회 출전이 논쟁거리다. 2019년부터 호르몬 요법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 여성 수영선수 리아 토머스는 지난달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 대학스포츠협회(NCAA) 주최 여자 자유형 500야드(457.2m)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20도쿄올림픽 여자 400m 개인혼영 은메달리스트인 엠마 웨이언트의 2위 기록보다 1초75 빨랐다.

미국 수영협회는 지난 2월 트랜스젠더 선수의 호르몬 수치 요건을 강화했지만 NCAA는 시즌 중 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토머스의 출전을 허용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NCAA가 여성 스포츠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2위인 웨이언트를 대회 우승자로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체육회, 현행법 위반... 피해 호소에 “연봉 불만 때문”



◀앵커▶

부산시체육회 관련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한 실업팀 감독의 성추행 및 갑질 의혹에 대한 부산MBC 보도에, 부산시체육회는 이같은 피해 호소가 연봉 협상때문이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사는 지난 1일에야 착수했는데, 이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MBC 보도 이후 부산시체육회가 보내온 입장문입니다. 피해 선수들의 문제제기가 '재계약과 연봉 책정'으로 인한 '감독과의 불화'에서 비롯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선수들이 '연봉협상 시기'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시체육회 관계자]

"(선수들이 문제 제기한)시기가 절묘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재계약이 되니까 선수와 감독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한 거죠."

5년 전부터 지속돼온 성추행부터 휴가 서명 강요, 계약 과정 상 갑질까지. 피해 선수만 9명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연봉 불만'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피해를 호소하지 않고 연맹을 통해 함께 대응한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부산시체육회 관계자]

"(정례 설문 조사한) 그때는 사실 이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왜 이걸 연맹한테 불만을 토로해가지고 이걸 행정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난해 역도팀의 집단 의견 표명에 침묵했던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체육회 관계자]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시체육회는 지난달 31일, 부산MBC의 취재가 시작되고 선수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일명 '최숙현' 법은 인권 침해 요소를 알거나 의심이 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체육회 관계자]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하고 대한체육회나 상위법에 제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까지는 생각을 못 했네요."

장인화 부산시체육회장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직후인 지난 2020년 7월, 폭력과 갑질 등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



북한서 '70년대 탁구여왕' 박영순 다룬 새 스포츠 연속극 방영

북한이 1970년대 세계 탁구대회를 제패해 '탁구여왕'으로 꼽힌 박영순의 생애를 모티브로 한 새 드라마를 공개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3일 장편 실화 소설 '사라지지 않은 혜성'을 바탕으로 제작한 TV연속극 '마지막 한 알' 1부를 처음 방영 했다.

드라마는 1975년 2월 15일 인도 콜카타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준준결승에서 남북한이 겨룬 여자 단식 5세트 막바지 장면으로 시작한다.

당시 준준결승에서 북한의 박영순 선수가 남한의 정연숙(정현숙) 선수에게 16 대 20으로 밀리던 결정적인 순간을 집중 조명하며, 실제 경기중계를 연상케 하는 영어 해설과 슬로모션으로 날아가는 탁구공, 선수들에게 맺힌 땀방울과 관중의 환호 등을 교차 편집해 긴박감을 높였다.

당시에는 21점을 먼저 따면 한 세트를 얻고, 5전 3승제를 적용했다. 두 선수가 각각 2세트씩 가져갔기에 1점만 더 내주면 남한이 준결승에 진출하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탁구공 한 알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느냐"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오고 화면은 1960년대 박영순의 유년기로 돌아가 평안북도 삭주군 산골 마을에서 체육무용(체조)을 하던 인민학교(소학교) 학생이 어떻게 탁구채를 처음 쥐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박영순은 군 체육관에서 학교 대항전으로 벌인 탁구 경기에서 자신의 학교가 지자 분한 마음에 탁구 소조에 들어가게 되고, 어머니의 반대 속에 한 달의 기한을 얻어 산에서 탁구채를 천 번씩 휘두르고, 왼손 탁구선수로 키우려는 감독의 독려 속에 밥도 왼손으로 먹어가며 연습에 매진한다.

하지만 진로를 결정하는 경기에서 크게 밀리자 마지막 '한 알'의 기회가 남아있음에도 탁구채를 내려놓고 나가는 모습으로 1부를 마쳐 궁금증을 자아냈다.

북한이 2022년에야 50년 전의 인기 스포츠 스타를 다시 상기하는 드라마를 제작한 점이 주목된다.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1975년도 당시 결승전이 아닌 남북한이 맞붙었던 준준결승으로 드라마를 시작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당시 박영순은 5세트에서 23대 21로 승리했다.

박영순은 1975년과 1977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 개인전에서 연속 우승했으며, 각종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15개를 포함해 메달 37개를 획득해 '로력영웅' 칭호를 받은 인물로, 북한의 대표적인 스포츠 스타다.

스포츠 경기가 통상 애국심 고취의 역할을 하는 만큼 북한이 남한을 꺾고 중국과 소련 등 세계적인 강자들을 물리치며 1등을 했던 당시 경기와 그 중심에 있던 선수를 드라마화하면서 주민들의 단합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간 스포츠 소식

"교육만 강화하면 한국스포츠는 금지약물 청정지역이 될 수 있다" ...김금평 KADA 사무총장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204091245003&sec_id=530101&pt=nv

尹 당선인, IOC 위원장과 통화 "국제 스포츠 대회 러시아 참가 불허 지지"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4/08/FF2F6FYSDNGPDCUPVE6X4Y2NS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세계선수권 첫 은메달' 팀 김, 여성스포츠대상 3월 MVP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9366632294152&mediaCodeNo=258>

e스포츠협회, 문체부 지정 '이스포츠 시설' 신규 모집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05_0001821107&cID=10406&pID=13100

[광주 남구소식] 양궁 스포츠클럽 육성...5년간 매년 1억씩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4103100054?input=1195m>

목포해양대, 해양스포츠 선수단 창단... '꿈을 펼치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40815270804091>

충주시, 충주상공회의소와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 지원 협약

<https://www.news1.kr/articles/?4641095>

포항시 다목적 체육시설 잇따라 준공...삶의 질 향상 앞장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06_0001823557&cID=10810&pID=10800

정선군, 공공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163억 투입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5058600062?input=1195m>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